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2021년 전시 계획 - 공동의 삶, 공유의 기술을 일구는 미술관		
문의	취재문의 : 장효진 (t. 031-201-8545 m. 010-2758-7451)		
배포	2021. 1. 14.	쪽수	총 9 매

[백남준아트센터 2021년 전시 계획 - 공동의 삶, 공유의 기술을 일구는 미술관]

■ 2021년 전시 방향: 공동의 삶, 공유의 기술, 매개의 예술

- 사회의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술관의 역할과 사명을 숙고
- 문화-예술 콘텐츠의 지속적인 공유와 창작 환경 조성
- 사회적 연대와 공감의 가능성 모색을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업, 공동사업 활성화
- 지역사회의 공유지로서 예술 향유와 배움의 기회를 확장

■ 2021년 전시 계획

- 기획전 《전술들》 | 2021년 2월 25일(목) ~ 6월 3일(일)
- 백남준전 《웃음》(가제) | 2021년 4월 1일(목) ~ 2022년 2월 2일(수)
- 기획전 《오픈코드》 | 2021년 7월 1일(목) ~ 2021년 10월 24일(일)
- 제 7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작가전 《캠프》(가제) | 2021년 11월 18일(목) ~ 2022년 2월 27일(일)

백남준아트센터(관장 김성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회복을 위해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2021년 전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1년 ‘공동의 삶, 공유의 기술, 매개의 예술’을 핵심가치로 삼고, 미술관이 지역사회의 공유지로서 예술 향유와 배움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백남준아트센터는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 첫째,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의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나은 변화의 방향을 제안한다. 2021년 첫 기획전 《전술들》은 전염병의 시대에 어떻게 함께 살아 갈 것인지 질문함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만연한 차별과 공포를 연대와 공감의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는다. 구민자, 송민정, 전소정, 요한나 빌링, 배드뉴데이즈,

박선민, 박승원, 요나스 스탈+로르 프로보스트, 8명/팀의 작가들과 함께 전시(戰時)와 같은 지금, 몸으로 행하는 작은 실천들을 제안하며 인간, 자연, 사물이 공존하는 삶의 전술을 숙고하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논의되지 못한 이야기들이 전시를 매개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미디어 기술의 보다 적극적인 도입으로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의 지속적인 공유와 창작 환경을 조성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결합한 작품 해설과 체험 앱 개발, 대면과 비대면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이 새로운 가치와 표현들을 제약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이후 문화예술 향유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더불어 오늘날 현대사회의 현실에 부응하는 소장품 해석과 확산에 주력한다. **백남준전 《웃음》**은 창조적인 일상의 실천, 작가와 관객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백남준과 플렉서스 정신의 확산을 유머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전시로, 리투아니아의 요나스 메카스 비주얼 아트센터와 함께 플렉서스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는 존 케이지, 조지 머추나스, 백남준, 요코 오노, 조지 브레히트, 라 몬테 영 등이 제작하고 참가한 다양한 플렉서스 이벤트의 스코어, 사진, 플렉스 키트, 플렉서스 그래픽, 출판, 필름, 비디오 등을 포함한다.

셋째, 국내외 교류와 협업, 공동사업을 활성화한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제교류 이행을 다각도로 타진하여 요나스 메카스 비주얼 아트센터(리투아니아), 독일 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ZKM, 독일)와 협력 등 해외 주요 기관과 협력하고, 인도 뭄바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캠프(CAMP)의 국내 첫 전시,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작가전 《캠프》** 개최를 통해 세계 미술계와 함께 위기 속에서 문화의 힘과 역할을 모색할 것이다. 샤이나 아난드, 아쇼크 수쿠마란, 산제이 반가르를 주축으로 여러 작가들의 협업체로 움직이는 캠프의 전시는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참여와 소통을 실행하는 그들의 독특한 작업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캠프는 지난해 제 7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 이후, 한국에서는 첫 전시로 관객과 만난다.

넷째, 백남준아트센터는 지역사회의 공유지로서 예술 향유와 배움의 기회를 확장한다. 독일 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ZKM)와 함께 기획한 **《오픈코드》**를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미술관의 새로운 역할과 확장성을 실험한다. 전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디지털 코드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세계로 성찰하는 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의 디렉터이자 작가 피터 바이벨의 사유와 백남준의 공유지 사유가 공명한다는 점으로부터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 자산이자 지대로서 미술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미술관 실천이다. 백남준아트센터의 전시와 교육 실험을 통해 백남준 예술에 담긴 만남과 공유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2021년 세부 전시 소개

2021년 첫번째 기획전 《전술들》

■ 전시 개요

- 전 시 명 : 전술들 (국문), Tactics (영문)
- 전시기간 : 2021년 2월 25일~6월 3일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2층 제2전시실
- 참여작가 : 구민자, 송민정, 전소정, 요한나 빌링, 배드뉴데이즈, 박선민, 박승원, 요나스 스탈+로르 프로보스트
- 전시기획 : 이채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 전시협력 : 김선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 주최 및 주관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 후원 : 네덜란드 대사관

■ 전시 소개

2020년 ‘세계화’의 절정이 아닐까 싶은, 온 국민이 전 세계를 제집 드나들 듯이 살고 있다고 느끼던 바로 그때쯤 시작된 전염병으로 인류는 전대미문의 일을 겪고 있다. 철학자들과 미래 학자들은 팬데믹 상황이 우리를 원시시대와 같은 “생존을 위한 사회”로 회귀시키고, 자본의 불균형은 죽음 앞에 더욱더 양극화되어 비민주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 갈 것인가?”라는 저 단전에서 끌어올려 정색하는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는 이 질문 앞에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시 <전술들>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자연과 사물 그리고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삶의, 그리고 예술의 전술을 고민한다. 《전술들》의 작가들은 전시(戰時)와도 같은 이 시기에 몸으로 행하는 작은 ‘수행’들로 틈새를 만든다. 사물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새로운 연합체 “모호한 연합”을 구축하고(요나스 스탈+로르 프로보스트), 소도시의 작은 커뮤니티를 구제하기 위한 공공의 안무를 짜고 퍼포먼스를 수행하며(요한나 빌링), 화물노조의 운전기사들의 투쟁 동선을 따라 ‘트럭 운전자들의 브이로그’를 스트리밍 한다(배드 뉴 데이즈). 장난감에게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어주면서 끝없는 기다림을 되새기고(박승원), 끈질긴 응시를 통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지 사유를 정돈하고(박선민), 도시의 주변인, 스케이터들을 따라 도시의 동선을 재편하고 이를 통해 타자에 대한 이해와 포용에 대해 이야기(전소정)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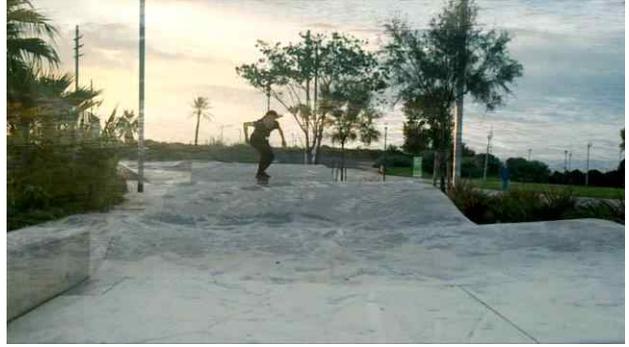
전시 《전술들》은 타자가 억압과 감시의 대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작은 이야기로 그 체계를 균열 내는 움직임의 보고자 한다. 어쩌면 이 작은 예술적 실천들을 밀어 넣어 단단한 세상 속을 들여다 볼 작은 구멍을 내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무모한 기대와 함께 말이다.

■ 주요 전시작 이미지



요한나 빌링, 인 퍼플, 2019, 12'00", HD 싱글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Johanna Billing, *In Purple*, 2019, 12'00", HD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Film production by HER film, Produced by Public Art Agency Sweden, Partners by Mix Dancers, the municipality of Jönköping © Johanna Billing



전소정 <광인들의 배>, 2016, 20'50", 싱글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공간설치

JunSojung, *La nave de los locos(The ship of fools)*, 2016, 20'50",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space installation
Produced by the Han Nefkens Foundation © Sojung Jun

2021 백남준전 《웃음》(가제)

■ 전시 개요

- 전 시 명 : 《웃음》(가제)
- 전시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2년 2월 2일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1층 제1전시실
- 참여작가 : 백남준, 존 케이지, 조지 머추나스, 요셉 보이스, 에이-오, 요코 오노, 미에코 시오미, 요나스 메카스, 조지 브레히트, 라 몬테 영, 벤 보티에, 벤 패터슨 외
- 전시기획 : 박상애(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 전시진행 : 정윤희(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이재운(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 주최 및 주관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 협 력 : 요나스 메카스 비주얼 아트센터(리투아니아)

■ 전시 소개

4월 1일(목)부터 2022년 2월 2일(수)까지 백남준아트센터 1층에서 《웃음》(가제)을 개최한다. 《웃음》은 195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시작하였고 백남준이 1958년부터 가담했던 예술가 그룹

플럭서스와 백남준을 조망하는 전시이다. 작가들의 유연한 네트워크이자 하나의 태도와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플럭서스는 기존의 사회와 예술체제에 대한 일종의 혁명이자, 동시에 특정한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예술을 일상으로 끌어냈다. 일상 속에서 예술과 사회의 통념과 제도에 대해 유쾌하고 흥미롭게 반기를 든 플럭서스 정신은 백남준의 사유와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백남준전 《웃음》은 이러한 맥락에서 백남준의 예술과 플럭서스를 접목하여 보여준다.

이 전시에서 백남준아트센터는 요나스 메카스 비주얼 아트센터와 함께 리투아니아의 플럭서스 컬렉션을 한국에서 선보인다. 《웃음》을 통해 관객들은 플럭서스의 시작점에 있던 존 케이지와 스스로를 플럭서스로 자칭한 조지 머추나스, 백남준, 에이-오, 요코 오노, 조지 브레히트, 라몬테 영 등이 제작하고 참가한 다양한 플럭서스 이벤트의 스코어, 사진, 플럭스 키트, 플럭서스 그래픽, 출판, 필름, 비디오 등을 망라하여 볼 수 있다. 또한 플럭서스 예술가로서 보여준 백남준의 교향곡 시리즈를 비롯한 퍼포먼스 스코어와 사진 기록, 오브제들이 전시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삶의 무거움을 해학으로 풀어낸 플럭서스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유쾌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주요 전시작 이미지



만프레드 레베, <<장피에르 빌헬름에 대한 경의>, 뒤셀도르프), 1978, 20.3×25.4cm, 흑백 사진, 백남준(작가 및 공연자) © Manfred Leve

Manfred Leve, *Hommage à Jean-Pierre Wilhelm, Dusseldorf, 1978, 20.3×25.4cm, black & white photograph, Nam June Paik (artist and performer) © Manfred Leve*



피터 무어, <<플럭서스 소나타 4번>, 앤솔로지 필름 아카이브, 뉴욕), 1975, 40×59.5cm, 바리타지에 흑백 사진, 백남준(작가 및 공연자) © Estate of Peter Moore / VAGA, New York

Peter Moore, *Fluxus Sonata No. 4, Anthology Film Archives, New York, 1975, 40×59.5cm, black & white photograph on baryta paper, Nam June Paik (artist and performer) © Estate of Peter Moore / VAGA, New York*

2021 두번째 기획전 《오픈코드》

■ 전시 개요

- 전 시 명 : 《오픈코드》
- 전시기간 : 2021년 7월 1일 ~ 10월 24일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2층 제2전시실
- 참여작가 : 백남준, 피터 바이벨, 셴 막시모, 번트 린터만, BNAG 외
- 전시기획 : 김윤서(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정윤희(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 주최 및 주관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 협 력 : 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ZKM, 독일)
- 후 원 : 독일문화원

■ 전시 소개

백남준아트센터는 독일 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ZKM)와 함께 기획한 《오픈코드》를 통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미술관의 새로운 역할과 확장성을 실험한다. 이 전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디지털 코드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세계로 성찰하는 ZKM의 디렉터이자 작가 피터 바이벨의 사유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백남준의 공유지 사유와 공명하는 지점에서 두 기관이 협업하여 이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오픈 코드》는 미술관을 스튜디오, 실험실, 공동체 교육의 장소로서 다기능적인 새로운 매체 겸 코딩 기술 실험실로 변형시킨다. 모두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공동재산으로서의 미술관을 운영하는 실험을 통해 사회의 회복에 기여하는 미술관의 역할을 실행하고자 한다.

《오픈코드》는 2017년부터 독일 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로 시작으로 인도, 스페인, 중국, 멕시코에서 열렸다. 백남준아트센터는 한국 지형에서 새로운 주제와 작가를 발굴하여 새롭게 선보이며, 전시와 교육 실험을 통해 백남준 예술에 담긴 만남과 공유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주요 전시작 이미지



《오픈코드》 전시전경 © ZKM Center for Art and Media



《오픈코드》 전시전경 © ZKM Center for Art and Media

제7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작가전 《캠프》(가제)

■ 전시 개요

- 전 시 명 : 제7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작가전 《캠프》(가제)
- 전시기간 : 2021년 11월 18일 ~2022년 2월 27일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1층 제2전시실
- 참여작가 : 캠프(CAMP)
- 전시기획 : 조권진(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김선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 주최 및 주관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 전시 소개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은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백남준의 예술정신을 계승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백남준의 예술정신에 대한 현재적 의미를 사유하고,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예술가를 발굴, 소개한다. 2020년 제7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자는 저항과 개방의 작업으로 미래를 사유하고 미디어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백남준이 바랐던 예술가의 역할을 몸소 보여준 ‘캠프(CAMP, 인도)’가 선정되었다.

캠프는 샤이나 아난드(Shaina Anand), 아쇼크 수쿠마란(Ashok Sukumaran), 산제이 반가르(Sanjay Bhangar)가 주축이 되어 2007년 뭄바이에서 결성한 스튜디오이다. 여러 작가들의 협업체로 움직이는 캠프는 연구, 개입, 발표, 기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다루며, 필름과 비디오, 전자 매체, 공공 예술의 형태로 작업하고 이를 오픈 소스로 공유한다.

캠프는 소유와 권위의 문턱을 예술적 실천과 도전의 장으로 간주하며 물질, 시스템, 도구와 같은 인프라를 둘러싼 질문, 요구, 가능성들을 탐구한다. 캠프가 직접 작업의 대상으로 삼는 전기, 교통, 교역, 아카이브, 비디오, 라디오, 인터넷과 같은 것들은 인간의 삶과 통합되어 하나의 사고모델로서 역할하며 이것들이 가진 불안정하고 빈틈의 여지를 주목하여 비판적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여 무의식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사회 구조와 설계에 대한 재고와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 개최하는 캠프의 개인전이다. 캠프의 전반적인 예술 활동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작업을 통해 추구해온 사유와, 오픈 플랫폼으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참여와 소통을 필수로 삼는 작업방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주요 전시작 이미지



캠프 스튜디오

책상에 스캐너 두 대, 컴퓨터 네 대, 네트워크 비디오 녹화기, 팬-틸트-줌 조이스틱, 마이크, 샐러드, 물, 비스킷, 커피. 두루마리 종이로 만든 책장, 책, 라우터, 상패, 책상 위쪽에 에어컨, 선풍기. 책상 아래쪽에 쥐라기 기술 박물관과 전자장비 목록, 그리고 사진 찍은 사람.

CAMP STUDIO

Two scanners, four computers, an NVR recorder, a PTZ joystick, microphones, salad, water, biscuits, coffee on the tables. Bookshelves made of paper rolls, books, routers, awards, air conditioning and fan above the tables. Inventory of electronics + museum of Jurassic technology below the tables, a person taking the picture.



뭄바이 파렐 저지의 폐쇄회로 카메라 풍경, 2017

캠프의 샤이나 아난드, 심프리트 싱, 아쇼쿠 수쿠마란이 뭄바이 파렐 PVR 피닉스 극장 아이맥스관에서 폐쇄회로TV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조작하며 강연하는 모습

CCTV Landscape from Lower Parel, 2017

CAMP members Shaina Anand, Simpreet Singh and Ashok Sukumaran manipulate and talk over a live CCTV stream at the IMAX theatre in PVR Phoenix, Parel, Mumbai.

■ 전시 관람 안내

- 관람요금: 무료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만 입장 가능
- 사전예약: <http://www.njpartcenter.kr/>
-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매년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

[첨부] 2021년 전시 일정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백남준전 《웃음》(가제)									
		기획전 《전술들》				기획전 《오픈코드》					국제예술상 수상작가전 《캠프》(가제)	

	전시명	전시기간	장소
1	기획전 《전술들》	2월 25일(목) - 6월 3일(일)	2층 제2전시실
2	백남준전 《웃음》(가제)	4월 1일(목) - 2022년 2월 2일(수)	1층 제1전시실
3	기획전 《오픈코드》	7월 1일(목) - 10월 24일(일)	2층 제2전시실
4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작가전 《캠프》(가제)	11월 18일(목) - 2022년 2월 27일(일)	2층 제2전시실

*전시제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